

대장암 로봇수술 국내 첫 3천례 달성



서울아산병원 대장암센터 의료진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대장암센터 대장항문외과가 국내 최초로 대장암 로봇수술 3,000례를 달성했다.

서울아산병원 대장암센터는 최근까지 3만 9천 건의 대장암 수술을 시행했으며, 그중 복강경 대장암 수술 1만 3천 건, 로봇 대장암 수술 3천 건을 시행했다. 또 직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은 병기별로 1기 96.6%, 2기 94.8%로 매우 우수하다. 3기 환자의 5년 생존율도 2015년 83.1%에서 2017년 91.3%로 8.2%p 향상됐다.

연간 7만 명 이상의 대장암 환자가 찾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센터인 서울아산병원 대장암센터는 정밀한 수술 기법과 환자 중심의 진료 체계를 바탕으로 대장암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학제 통합진료를 시행해 누적 1만 건 이상의 통합진료를 시행했으며, 환자들의 삶의 질을 고려해 90% 이상을 항문보존수술로 시행하고 있다.

중국 칭화대 초청받아 현지 생체 간이식 집도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승규 석좌교수가 중국 칭화대 부속 창궁병원에서 생체 간이식을 받은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간이식팀이 중국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칭화대 부속 창궁병원에서 5월 11일 생체 간이식을 집도했다. 간이식·간담도외과 이승규 교수를 비롯한 간이식팀은 담도폐쇄증을 앓고 있는 생후 6개월의 중국 남아에게 아버지의 간 일부를 떼어내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아이는 순조롭게 회복해 수술 16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이번 수술은 한·중 간이식 학술회의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는데, 중국 우수 병원의 간이식 전문가 2만 명이 동시 시청하면서 한국 생체 간이식의 높은 수준을 중국 전역에 알린 기회가 됐다.

진료협력병원 초청 간담회 개최



5월 16일 열린 진료협력병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진료협력센터가 5월 16일 동관 대강당에서 진료협력병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료협력병원 137개 기관의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아산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현재까지 226개의 진료협력병원과 진료의뢰·회송 중계 시스템을 통해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다.